

사건경위서

문의: 술취한 상태에서의 성추행 경험과 증거 수집

사건줄거리:

같은 업계서 일하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술과 함께 저녁을 하게 되는데 제게 멘토 같은 느낌도 있었고 대화 내용이 좋아서 오랜 시간 자리를 하게 됐어요. 그러다가 술이 좀 많이 취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저에게 키스를 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. 이성적인 이유로 가진 자리도 아니고 게다가 그분은 유부남이시고 너무 역겹고 싫었는데 문제는 제가 만취 상태라 어디서 어떻게 그분을 떨쳐냈는지 기억이 안나고, 그 다음 기억나는 부분은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려 올면서 토한 내용이네요 (약 12시30분경). 기억도 없고 정확히 어디서 그 영상을 찾을수 있는지도 모르겠고, 관계까지 끝까지 간 것도 아니고 중요한건 제가 얼마나 저항을 할 수 있던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.... 결국 증거란 제 증언과 택시 기록 그리고 그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남긴 술취한 문자내용밖에 없는데... 성추행이 인정이 될까요?

자세경위서:

저 (33세) 와 가해자 A씨 (추정 나이 38세) 는 몇 달 전 같은 업계에서 만나게 된 사이고 알고 보니 같은 고등학교 선배이셨습니다. 평소 다른 고등학교 동문/선배들과 좋은 경험이 있었고, A씨는 한국에 귀국한지 얼마 안된 저에게 일적으로 여러 도움을 주신 부분도 있었던 고마운 분이었습니다. 그러다 A씨가 몇 주전 퇴사를 하시면서, 저녁 한번 하자는 취지로 가볍게 10월 16일 저녁 7시 "구주잠실새내점" 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

A씨가 먼저 "술 먹을수 있으면 좋습니다" 라고 제안하셔서 제가 안주로 유명한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식당을 골랐고, 고등학교 동문이고, 멘토시고, 또 유부남이시기 때문에 저도 별 의심 없이 A씨와 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업계 행사에서도 다같이 술을 한적도 있고, 또 월요일 저녁이라 술을 곁들인 저녁을 하는 것이 딱히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

저녁 식사는 재밌게 흘러갔고, A씨와 미국과 한국 각 업계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오래 나누게 되었습니다. 제게 미/기혼 여부를 물어보시긴 했었지만 딱히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본인 동생을 소개 시켜줄까 하면서 기분 좋은 조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방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.

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되어있었고 (11시에 초대되었던 미국과의 optional meeting 알람이 울려서 알게 되었습니다), 11시 이후에도 마무리로 술을 몇 잔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11시 이후부터는 갑자기 취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 상태였습니다.

그리고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겼는데, 그 다음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은 A씨가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저에게 키스를 하는 기억이었습니다. 그 이후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고, 카드기록상 택시를 잡고 집 근처에 약 12시30분 내리게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, 사실 정확한 정황이

기억나지는 않습니다. 식당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 추행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후 12시 30분-1시 사이 집 앞에서 구토를 하며 옷매무새를 추스르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. 새벽 1시경 귀가했을때는 어머니가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하셨으니까요.

기록에 남아있는건, 12시부터 1시 사이에 최근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며 (참조 확인) "토할 것 같다," "날 이용하려고 한다," "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" 라고 알렸던 기록이 있고, 친구에게 "나쁜 일이 생겼다" 라고 문자를 보내서 친구가 약 12시 55분경 전화를 걸었더니 3분 내내 울다가 말을 안해주고 끊었다고 합니다.

A씨는 사건 이후 오전 8시, 그리고 5일이 지난 금요일 오후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 기억이 드문드문하고, 제일 중요한건 어디서 언제 추행이 일어났는지, 어디서 영상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, 준강제 추행죄 해당이 될 수있을까요?

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고 싶지 않아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며 대응을 하고 싶은데, 경찰 신고 없이도 주변 CCTV 등 자료를 얻을수있을까요?

참조: Timeline

10/16

06:30 피해자 구주잠실새내점 도착

07:00 가해자 구주잠실새내점 도착

23:00 :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시간대. 식당에서 11시에 있던 미팅 알림이 올림.

[약 1시간의 공백시간 - 이 이후로는 피해자의 기억이 없음]

00:00 택시를 잡은 예상시간

확실하지 않은 것들:

- 구주에서 빠져나온 시간
- 구주 직원의 목격담
- 택시를 잡은 시간
- 택시를 잡았을 때와 내렸을 때의 상태
- 근처 CCTV

00:04 전남친에게 첫 전화와 다급한 문자. 사건 내용은 문자로 남기지 않음. 전남친이 전화를 받지 못함.

00:25 첫번째 택시 결제 시간 총 25,300원, 집근처 전철역 하차 추정.

00:33 두 번째 택시 결제 시간 총 6,200원 아파트 입구 하차 추정.

0:33 전남친한테 전화 2. 전남친이 현재 부모님과 통화중이라 있다 전화한다고 답변음.

0:34 전남친한테 문자

00:38 문자 내역 "길을 잃었어" "나를 이용하려고 해"

00:41 전남친 리퀘로 단말기 위치 공유. 아파트 단지 앞

0:44 문자 내역 "토할것같아" "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"

00:52 전남친과 짧은 통화 3번, 하지만 단말기 문제로 끊김

00:55 다급한 문자 받은 친구와 통화 3분. 친구 말에 의하면 아무 말이 없었고 3분 내내 울다 끊었다고 함.

01:00 넘어서 멀쩡한 채로 집에 들어왔다는 어머니.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 (어머니는 추행 사건에 대해 모르고 계신 상태)

1:07 잠들기 전 친구한테 마지막 문자 "끔찍한 일을 당했어"
